

SFAC Issue paper _ Culture + Policy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4-5 (2024.6.5. 발간)

『지역문화정책의 전환 – 문화분권에서 문화활력으로』

- 한광연-한국지역문화학회 공동주최 춘계학술대회 리뷰

작성자 :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지역문화 = 고유성 + 다양성

지난 5월 24일부터 이틀간 부산의 힙플레이스 영도에서 한국지역문화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회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 부산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였다. 박상언 한국지역문화학회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지역문화, 고유성과 다양성을 품다”를 설명하며 개회를 선언했다. 박 회장은 지역문화를 아름답게 꽂피게 하는 것이 “고유성과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다양성 주간을 기념하여 이번 학회를 부산으로 유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광연 회장인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갈수록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광연 부설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계기로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지역 간 협력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행사 취지를 소개했다. 이런 행사 취지에 부응하여 강대금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이 행사를 축하하는 인사를 이어갔다.

2024 Spring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Glocal Culture

한광연&부산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4 한국지역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역문화, 고유성과 다양성을 품다”

| 일시: 2024. 05. 24(금) ~ 05. 25(토)

| 장소: 부산 라발스 호텔 _ 볼레로룸(4층)/쁘띠볼룸(2층)

<한광연-한국지역문화학회 공동주최 2024년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한국지역문화학회-한광연-부산문화재단 공동주최 2024년 춘계학술대회

정책 전환기의 동력.활력.매력으로 주목해야 할 로컬리티

이홍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가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기조를 녹여낸 강연 "전환기, 로컬리티와 동력·활력·매력 전략"으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 교수는 소용돌이와 같이 단순히 선형적으로만 전개되지 않는 전환기를 맞아 "무기력을 뛰어넘고, 동력을 추스르고, 활력을 일으키고, 매력을 키워가는 4력 전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공간, 시간, 인간을 "로컬리티"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컬리티 가치의 문화적 변용"을 위해 문화예술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공동체 순환활동으로서 공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컬리티에 기반한 지역 활력 증진의 실천적 제언으로서, 인구와 문화권 및 선점 이슈 등을 기준으로 한 <지역유형화 차별전략>, 수평적 협력거버넌스를 통한 <문화권 협력>, 감동관광을 지향하는 <문화관광>, 트렌드와 신기술을 감안한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문화재단들이 형식합리성을 위해 서류작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성을 추구하고, 소셜디자이너이자 활력전문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원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조세션 좌담>

이어서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네 명의 패널을 초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패널로 나선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로컬리티에 기반한 전략 수립에 앞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점검이 우선되어야”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에 순수 예술학과가 전무하고 청년 예술가가 부족하니 갈수록 자체 문화생산력이 떨어져,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찾아오는 문화예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심상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이제 물리적 공간과 장소 개념으로는 온전한 재생이 힘든 사실을 부산 구도심의 경우에 빗대어 제시했다. ‘비워짐’을 ‘비움’으로 전환하고, 채움과 투입, 개발의 구태 경영으로부터 탈피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화로 지역 매력-활력 증진 전략에서 지역과 국가, 중앙과 지방이 다를 의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패널로 나선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지역에 발딛고 살고 있는 지역민을 로컬리티의 수혜자로만 설정하고 정작 중요한 지역문화자산으로는 보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가나 내부자 시선을 뛰어넘어 로컬리티를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인구와 문화가 하나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소멸은 곧 문화소멸이며 활력상실로 직결된다. 따라서 문화로 지역의 매력을 높여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며, 지역에서의 동력, 활력, 매력의 시작과 끝은 정주 지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의 동력과 활력 확보가 지자체 단위에서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행 과제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정숙 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소장은 과거의 지역(local)은 대도시를 모델로 바라보며, 따라가기에 바쁜 ‘추수(追隨) 문명’의 공간과 같은 의미였으나, 지금은 로컬의 다양성이 재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지역 문화는 새롭게 발굴, 발견되고, 국제사회의 교류에도 로컬이 호명되며 파트너로서 선호된다. 정 소장은 유무형 유산과 역사, 생활양식, 예술인, 창작물 등 지역의 문화자산들이 지구의 문화 다양성을 지켜내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동관광이 감동을

정책지표로 수치화하고 자본주의 마케팅의 대상으로 활용할 위험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홍재 교수는 문화는 의미를 소비하는 것인데 그 감동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쓴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여서,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키우는 문화도시사업은 일부 장점은 있지만 그 추진방법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금처럼 문화부가 손에 돈을 들고 지역을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기획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김규원 박사는 “클래식의 대중화에는 반대하고, 대중의 클래식화에는 찬성한다”는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말을 인용하며 기조세션을 마무리하였다. 정상철 교수가 토론 중에 지방소멸로 지역문화가 백척간두에 선 절박한 상황인데 그에 걸맞는 지역문화담론 생산은 부진하다고 자책했지만, 이 세션이 바로 그런 담론의 자리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지역문화정책의 전환 – 문화분권에서 지역활력으로?

이어서 진행된 특별세션은 한광연 정책연구소가 (주)이음스토리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문화-매력-활력 증진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구성된 세션이었다. 사회를 맡은 김해보 한광연 정책연구소장은, “지방소멸”的 위기감까지 감지되는 인구급감 상황을 지역문화정책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중요한 국면으로 이해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997년에 경기문화재단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지역문화재단들이 지역문화정책의 주축으로 활약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방자치 시대>의 <문화분권>이 문화정책의 가치였다. 하지만 사반세기가 지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지역문화의 중앙 종속성이 강해진 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 이상(총 147개)이 지역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인구소멸의 위기감 속에 <지방시대>라는 정책기치가 내걸린 상황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활력>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	2024년 현재
지방 자치	지방 소멸
문화 분권	지역 활력
지역문화재단 최초 설립 (1997년 경기문화재단)	전국 총 147개 문화재단 (기관 명칭에 “관광” 포함 38건(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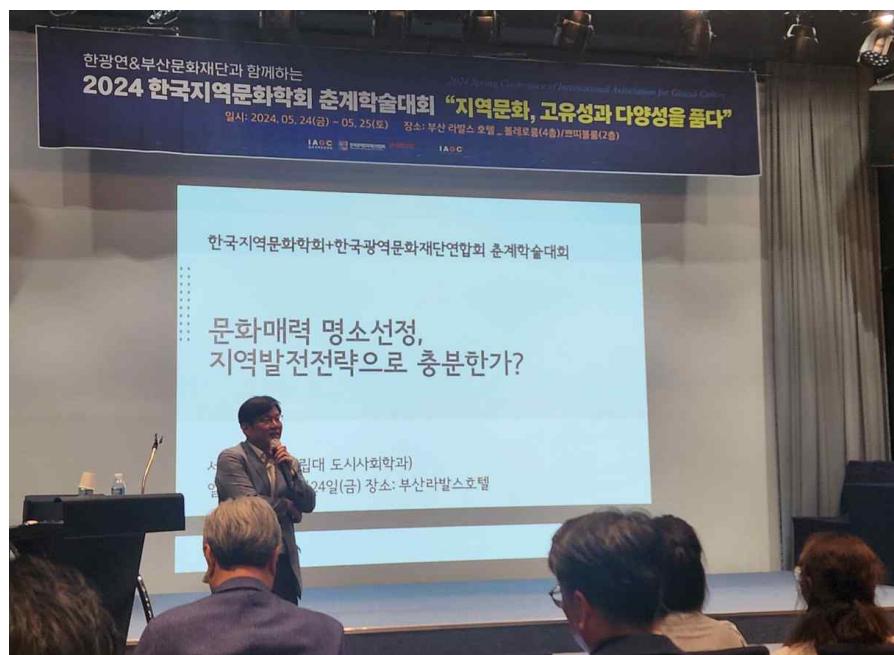
이런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성은 <문화재단> 보다는 <문화관광재단>으로의 전환 또는 설립 사례가 많아지는 현상에 반영된 지자체의 요구에서도 파악된다. 2024년 2월 현재 전국 총 147개 지역문화재단들 중 총 38개(25.8%) 기관의 명칭에 “관광”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2년 총 19건(141개 대비 13.4%) 대비 19건이 증가한 것이다. 건수로는 100%, 전체 대비 비중은 12.4%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광역 지자체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재단과 통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울산, 세종, 충남 등), 이제 강원, 경남, 광주, 전남, 서울 5개 광역 지자체만 관광재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관 명칭에 관광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문화예술 이외에 관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17개 광역문화재단 중에서 총 6개 재단이 본부단위 조직을 편제하여 관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은 애초 설립부터 “관광”이나 “축제”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광연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에서는 2022년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2023년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현장 – 지역문화재단들의 사례와 시사점』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문화재단들의 변화전략 연구를 수행해왔다. 2024.6월까지 진행되는 『지역-문화-매력-활력 증진방안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정책의 기조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문화재단들의 역할 변화 방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과제명	지역-문화-매력-활력 증진방안 연구 (발주처 : 지방시대위원회, 연구기간 : 2024.1~6월)		
연구 목적	문화를 활용한 지역 매력·활력 증진방안 제시 ⇒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문화-관광-지역 활성화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 제시 ⇒ 지역-문화-매력-활력 증진 차원에서 시행할 실천과제 제시 ⇒ 지속가능한 문화 매력 및 활력이 되기 위해 고려할 요소들 제시		
연구 질문	Q1. 지역의 매력·활력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이며, 문화는 어떻게 지역 매력·활력에 기여할 수 있나?	Q2. 이미 지역의 매력·활력을 증진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	Q3. 문화를 활용한 지역의 매력·활력 증진을 위해 공공정책은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세부 과제	① 요소 분석 (Understanding Elements)	② 사례 파악 (Exploring Practices)	③ 정책 제안 (Suggesting Policies)

지역-문화-매력-활력 증진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들

특별세션은 『지역-문화-매력-활력 증진방안 연구』에서 다루는 세부 논점들로 구성되었다.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는 "문화매력 명소선정, 지역발전전략으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으로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세션을 열었다. 서 교수는 <한국관광100>, <로컬100> 등 지방시대 문화전략으로 회자되는 문화매력 명소 선정 정책에서 결여된 것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서 교수는 우리 국민들의 평균 관광경험 증가, MZ세대의 SNS 이용과 이미지 소비, 라이프스타일 모빌리티 가능성 증가로 여가, 여행, 이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등에서, 문화와 관광이 결합한 문화관광의 가능성을 높게 파악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부의 <로컬100>은 지역문화브랜딩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며, 현재의 지역문화와 관광의 결합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로컬100>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착되지 안 되면, 한국관광100선의 후보군 정도로 인식될 위험성 있음을 지적했다. 명소선정 방식 시책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어쩔 수 없는 안배 선정 문제, 지역 내-지역 간 경쟁 발생, 전국적으로 유사사업군 내에서도 경쟁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서 교수는 문화와 관광의 결합이 중요하지만, 관광보다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은 분명 지역활력에 유의미한 답이지만 한정된 답일 뿐이다. 그리고 소위 쇼윈도우 부부처럼, 밖에서 보면 어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융합되지 못하는 현상의 뿌리깊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세션에서 첫 번째 쟁점을 발제하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

이무열 대표(전환스튜디오 와월당)는 “지역매력 _ 문화로 발견하기 vs. 예술로 발명하기”라는 제목으로 지역 문화-매력-활력 창조의 주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주었다. 우선 매력은 합리적인 설득 이전에 그냥 끌리고 감각할 수 있는 느낌인데, 지역문화의 정체성(고유성)을 재구성하여 지역마다 특이한 <장소애(topophilia)>와 <장소감(sense of place)>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지역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제 정보, 자원, 자본, 문화, 사람, 제품 등 모든 것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유동화(流動化) 경향>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의 매력을 생성하는 문화와 예술의 관계는 부즉불리(不即不離)의 상호보합적으로 작동함을 설명했다. <지역문화에서 재발견하는 방법>으로 “5번의 왜(why)’로 행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찾기”, “지역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오감 경험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역문화를 재발명하는 방법>으로 지역에서 청년들과 함께 진행했던 <노플랜(No-plan) 워크숍>의 사례를 들어 “모든 상황(공간, 시간, 관계, 의미 등)을 낯설게 배치하기”, “쉽게 바뀌지 않는 사고의 틀을 해체하기 위해 극단적 결합(radical collaboration)을 계획적으로 강제하기”, “거리 조절의 미학 ‘횡단성(橫斷性)계수’를 적절히 사용”하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예술가-기획자를 지역활력의 3주체로 보는 것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예술가를 지역으로 초대하고 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인구감소 보다 인구의 다양성 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임 지적했다.

홍주연 박사(한국관광공사 관광컨설팅팀)는 “라이프스타일비즈니스 시대 취향저격 _ 관광마케팅에서 문화기획까지”라는 제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매력 증진 관광컨설팅 사례를 문화사업에 적용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문화 관심 소비자들의 이동 및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인사이트 도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 및 민간 데이터 등의 이동 데이터 간 융합분석을 통해 필요한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결과 도출도 가능한데, 가명정보결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및 비장애인 관광 이동 형태 차이를 분석 한 “열린 관광지 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빅데이터 분석이 오히려 현실의 전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데이터로 현실을 읽을 때 그것이 좋은 렌즈일 수도 있고 흐릿한 렌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분석을 위한 보조적 틀로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주연 바리스타(모모스커피)가 받은 트로피를 배경으로 한 특별세션 토론 장면>

김해보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세션 토론에는 안소현 박사(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주연 바리스타(모모스커피 공동대표), 김성하 센터장(경기연구원 AI정책정책센터)이 토론패널로 초청되어 발제자들과 함께 지역활력과 문화적 매력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다. 안소현 박사는 관광자원이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지역의 문화, 지역주민의 삶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중 숙박방문객의 규모가 높은 강릉, 해운대구, 경주, 제주, 여수, 거제 등의 지역들은 방문객의 지역 내 체류 기간이 길고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는 데 이들 중에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다. 하지만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무조건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책실행 주체의 관점이 중요한데, 관광 이외에도 더 포괄적인 관점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지역 주체들의 활동 결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도록, 지역 자산화와 축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 우승자인 전주연 대표는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고 풍자되던 부산 영도 지역에 새로운 로컬리티로 자리 잡고 있는 모모스커피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아시아 최초 커피 박람회,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유치 등을 통해 부산의 로컬리티를 커피로 새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장 동시대적인 문화인 커피를 "Special for all: 특별함을 모두에게"라는 관점으로 제공하기 위해, '모두의 정원'이자 복합문화예술 활동까지 품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화, 예술, 관광, 지역활성화라는 정책이 결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해야지 굳이 행정의 영역구분으로 쪼개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민들은 행정주체들이 내 놓는 숫자가 현실에서 체감되지 않으므로 의구심을 가지고, 관광이 기초과학처럼 쪼개서 현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삶 전체의 독특함을 잊어버릴 위험성도 있다는 플로어 질문에 대한 화답이었다. 김성하 AI정책혁신센터장(경기연구원)은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활용 추세분석이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획일화시킬 위험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정책과 데이터 분석의 대상으로 획일화, 구조화된 문화가 관광 아래에 처할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문화 기획을 위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이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품는 문화 기획에 충분한 빅데이터들인지 쟁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은 없다, 문화는 없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는 김성하 AI정책혁신센터장(경기연구원)>

“굳게 지켜서 유지하는 것”(固有)이 아닌 “고로 존재하게 하는” 고유함(故有)으로

세션 마무리 발언을 부탁받은 김성하 센터장이 던진 말은 오히려 철야 토론의 문을 여는 말이었다. 그것은 “지역은 없다, 문화는 없다”라는 짧은 말이었다. 기조세션과 특별세션을 아울러서 이번 학술대회의 키워드인 지역문화, 고유성, 다양성에 대한 논쟁적 관점을 짚은 것이었다. 마침 사회자가 준비해 온 마무리 멘트도 고유성에 대한 것이었다.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고유성(固有性)”은 옛날 전쟁 이야기(古)를 뜻하는 “오래된 것”을 성으로 예워싸서 지켜온(固) 것이다. 하지만 늘 변화하는 문화는 지역이 현재에 “고로 존재하는(有) 이유가(故)”가 되는 “고유성(故有性)”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 터 잡고 사는 개별자들의 다양성을 품어서 늘 변화하는 고유성, 그래서 지역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故有性)이 곧 “지역문화”的 성질과 살 길이다. 사실 챗-GPT에서 최근 SORA로 발전한 인공지능은 환경 위에서 변화하는 개체의 고유성에 대한 계산 문제까지 해결해 버렸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Capacity와 Attention이다. 정책도 다양한 것들을 품는 Capacity와 지향해야 할 가치에 집중하는 Attention 역량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지역문화의 고유함	
固有性	굳게 지켜 온 오래된 것
故有性	고로 존재하게 하는 이유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일 뿐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문의
: 미래전략팀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4-5

『지역문화정책의 전환 - 문화분권에서 문화활력으로』

- 한광연-한국지역문화학회 공동주최 춘계학술대회 리뷰

발행일 : 2024.06.05.

발행인 : 이창기

발행처 :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기획/집필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편집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디자인 :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는
[이슈], [동향], [현장] 소식으로 격주 수요일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됩니다.
https://blog.naver.com/l_sfac